

## 통역수업을 위한 위키학습모델 개발\*

양성혜\*\* · 송상기\*\*\*

고려대학교

양성혜 · 송상기 (2012), 통역수업을 위한 위키학습모델 개발.

**초 록** 국제화 시대에 전문적인 외국어 통역사의 양성은 국가경쟁력과 결부된 필수적인 교육 사안이다. 통역교육은 대학의 외국어학과나 통역학과와 학부 및 통역 전문 대학원 교육과정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주로 전통적인 면대면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역수업은 주제준비, 용어준비, 실제통역, 피드백으로 구성된다. 기존 수업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수업 시간에 다룰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 및 용어가 개인과제로 부과됨에 따라 자료의 공유가 미리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자들이 동등한 통역준비 기회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구두언어로 수업시간에 실습한 내용에 대한 교수자 및 동료학습자의 피드백이 시간간격으로 한정적이고 학습자의 자가 피드백 기회가 없어 학습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만일 통역 전에 배경지식과 용어에 대한 자료가 공유되고 통역 후 활동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통역에 대한 성찰을 할 기회가 제공된다면 학습효과는 보다 상승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기존의 면대면 통역 수업에 대한 대안으로 본 논문에서 통역 수업의 블렌디드 러닝을 제안하였고 위키학습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핵심어** 블렌디드 러닝, 무들, 용어집, 위키, 통역수업, 학습모델

---

\* 본 논문은 고려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Supported by a Korea University Grant).

\*\* 책임연구원

\*\*\* 공동연구원

## I. 연구의 목적

국제화 사회에서 전문 외국어 통역사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경쟁력과 결부된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통역교육은 대학의 외국어학과나 통역학과와 학부 및 통역 전문 대학원 교육과정 내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통역 수업의 교육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학습자가 해당 외국어를 숙달하고, 둘째,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셋째, 통역기술을 연마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이 어느 교과보다 강조되며 학습자 수준에 따른 맞춤형 학습이 요구되는 강좌라고 할 수 있다.

대학내 통역수업은 주로 전통적인 면대면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제준비, 용어준비, 실제통역연습으로 통역의 실체에 맞춘 시뮬레이션형의 수업형태이다. 이때 수업이 실제와 다른 점은 학습자가 통역한 내용에 대하여 교수자와 동료학습자들이 평가를 하여 통역자가 차후 보다 나은 통역을 할 수 있게 돕는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수업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주제배경조사 및 전문용어 정리 과제를 교수자가 정리하여 주제와 용어에 대한 통역준비단계를 점검한 후 통역 실습에 들어간다.

통역실습은 크게 연사의 말 전체나 일부분이 끝난 이후 목표어로 전달하는 순차통역과 원문의 연설이 발화되는 동시에 목표어로 전달하는 동시통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역 입문 수업에서는 통역부스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실환경과 학습자들의 언어숙달이 동시통역을 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점 때문에 동시통역이 아닌 순차통역이 주로 이루어진다. 순차통역수업에서 실제적으로 음성으로 원문을 읽어주거나 통역해야할 자료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교수자 주도의 연설통역 실습과 학습자가 직접 연사 대신에 출발어로 발의하면 다른 학습자가 이를 목표어로 통역하는 토론 형태의 학습자 주도의 통역 실습이 가능하다. 어떤 형태의 실습이든 각 학습자의 통역이 끝날 때마다 동료학습자와 교수자의 비평이 이어지므로 수업은 극도의 긴장된 분위기에서 학습자들이 정서적 압박을 겪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기존의 통역 수업은 면대면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크게 두 가지 문

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학습자들은 통역연습에 앞서 주제 및 용어준비를 개별과제로 하기 때문에 준비정도가 상이하고 수업시간에 교수자가 정리해주기 전까지 다른 학습자가 구축한 자료에 대해 알 수 없다. 즉 자료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수자가 수업시간에 정리해 주기 전까지 실제 통역에 앞서 학습자들은 해당 주제에 대한 지식을 접하고 준비할 동등한 기회를 얻지 못한다.

둘째, 수업시간에 실제 통역실습을 할 때 교수자와 동료학습자들의 평가가 구두로 이루어지지만 음성언어의 특성상 모든 내용을 기억할 수 없어 오류를 일일이 지적할 수 없고 통역자 스스로도 수업 후에 자신이 통역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성찰할 기회가 없다. 통역 수업 목표가 학습자 개인의 외국어 숙달 및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 함양, 통역기술의 연마라는 것을 감안할 때 학습자가 자신의 통역내용을 스스로 피드백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기존의 면대면 통역수업의 문제점은 온라인 활동을 도입하여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sup>1)</sup>으로 운영했을 때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다고

1)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개념은 주로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을 조합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블렌디드 러닝'은 웹 기반 테크놀로지간의 결합, 교육학적 접근간의 결합, 교수·학습 테크놀로지와 면대면 수업의 결합, 교수·학습 테크놀로지와 업무와의 결합 등과 같이 광의의 정의도 가능하다(Driscoll 1994). 학교교육에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지칭했을 때 수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웹을 수업 활동에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 온라인형, 혼합형, 보조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온라인형(on-line mode)은 모든 학습이 완전히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강의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전 과정이 게시판, E-mail 등의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로 보통 사이버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습형태이다. 혼합형(mixed mode)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절충하여 사용하는 수업의 형태로서, 주된 교수·학습활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형태를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볼 수 있다. 보조형(adjunct mode)은 정규 교수·학습활동은 면대면 정규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추가적·보충적인 상호작용의 수단으로 온라인이 활용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Harasim *et al.* 1995). 한국교육공학회(2006)에서는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블렌디드 러닝을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시간과 공간, 학습방법, 학습매체, 상호작용 방식 등 다양한 학습요소들의 복합적 활용을 통해 최적의 학습효과를 창출해내기 위한 설계 전략으로서, 주로 온라인 학습전략과 오프라인 학습전략을 적절히 결합, 활용함으로써

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통역수업이 오프라인 수업을 보조하는 온라인 학습의 도입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학습 공간과 시간이 확장되면 자기주도 학습여건이 조성되고 학습자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게 되어 결국 학습자 개인의 통역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에서 수업의 참여자인 학습자들간의 협력학습을 강화하는 학습도구를 이용함으로써 배경지식 조사 및 용어 정리와 같은 수업 준비 과정과 통역내용에 대한 피드백과 같은 수업 후 활동이 강화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온라인 활동에서 협력학습도구 중 통역 수업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위키(Wiki)와 용어집(Glossary) 사용을 제안하며 외국어 통역 수업을 위한 위키 기반의 학습모델을 최종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도출된 위키학습모델은 외국어 통역 수업에 온라인 활동을 적용하여 블렌디드 러닝을 수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수자들에게 유용한 교수학습모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up>2)</sup>

---

학습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학습체제 설계 전략”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블렌디드 러닝’의 개념을 이해할 때 단순히 전통적인 강의 수업에 덧붙여 온라인으로 학습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보다, 학습자의 요구에 맞추어 보다 질 높은 학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면대면 강의를 재구조화하면서 온라인 강의와 학습지원 도구를 적절히 구조화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인 양성혜(2012a)에서는 면대면 통역수업의 문제점과 번역수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온라인 활동을 도입하여 수업을 개선하는 설계안을 교수요목 입장에서 통해 제시한 바 있다. 즉 온라인 활동을 통해 조정되는 오프라인 활동과 달라지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을 재구조화된 교수요목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만족도 조사를 항목별로 자세히 다루었다. 그러나 학습모형에 대한 논의는 담고 있지 않아 새로운 논문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논문을 계획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번역수업은 통역수업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 통역수업에 한정시켜 위키 기반 학습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석사논문 양성혜(2012b)의 일부 내용을 발전시켜 학술지 논문 형태로 다듬어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음을 밝힌다.

## II. 통역수업의 블렌디드 러닝 방안

본장에서는 서론에서 제기한 면대면 통역 수업의 실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오프라인 수업을 보조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을 적용한 블렌디드 러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통역수업의 실제와 문제점

통역은 주제준비, 용어준비, 마지막 순간 준비 및 실제 통역으로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최정화 1998, 9-20).

|      |           |
|------|-----------|
| 1 단계 | 주제준비      |
|      | ↓         |
| 2 단계 | 용어준비      |
|      | ↓         |
| 3 단계 | 마지막 순간 준비 |
|      | ↓         |
| 4 단계 | 실제통역      |

〈그림 1〉 통역의 실제

1단계 주제 준비는 통역 의뢰를 받은 회의 주제에 관한 제반 자료를 읽으며 주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통역사는 각종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다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2단계 용어 준비는 통역해야 할 분야의 전문용어를 찾아내어 정리한 다음 외우는 과정이다. 통역 전에 만드는 용어 목록은 알파벳순으로 정리하는 것 보다는 단어가 나오는 순서대로 쓰거나 내용 전개 순이나 취급공정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3단계 마지막 순간 준비는 사전에 준비한 주제에 관해 곧 발표될 연설문 내용을 회의 직전에 보는 것이다. 원고가 있는 경우 발표될 연설문 내용을 회의 직전에 보는 단계로 모르는 용어나 내용이 있으면 연사에게 미리 설명을 요청한다. 원고가 없으면 이 단계는 생략한다.

마지막 4단계인 실제통역은 출발어에서 도착어로 청중의 이해를 고려한

가장 자연스럽고 정확한 표현으로 통역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도착어가 통역사의 모국어인 A언어이며 출발어가 ‘능동언어로서 모국어는 아니지만 의사전달의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언어’(AIIC 기준<sup>3)</sup>)인 B언어인 것이 가장 좋은 언어 배합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A언어가 출발어가 되고 B언어가 도착어가 되는 상황도 있으므로 통역사는 양언어의 숙달을 위해 부단한 연습과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전통적인 면대면 통역수업에서는 통역의 실제에 맞추어 시뮬레이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역의 실제 단계를 통역수업에서 그대로 반영하되 마지막 단계로 피드백이 추가된다. 마지막 순간 준비를 생각하고 통역 후 피드백을 추가한 통역수업 모형은 <그림 2>와 같이 네 단계로 나타낼 수 있다.

|      |            |
|------|------------|
| 1 단계 | 주제 배경지식 조사 |
| 2 단계 | 용어정리       |
| 3 단계 | 통역실습       |
| 4 단계 | 피드백        |

<그림 2> 통역수업의 실제

일반적으로 주제준비를 통한 배경지식 정리와 용어정리가 개별과제로 부과되어 학습자들은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혹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과제 제출방에 문서파일을 업로드한다. 수업시간에는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과

3) AIIC(국제회의통역사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ference Interpreters의 프랑스어 약자)는 1953년 파리에서 창설된 국제회의통역사 협회로 2012년 현재 세계 5대륙 90개국의 3천여 명의 정회원을 확보하고 있다(<http://aiic.net>). AIIC의 회원이 되려면 이미 AIIC 회원 통역사와 함께 통역한 경험이 있어야하며 기회원의 추천 서명을 받아 제네바에 있는 협회 사무국에 신청양식을 구해 제출하면 된다. 매년 발행하는 연감에 신청자의 이름과 통역언어가 실리게 된다. 이후 정회원이 되려면 직업윤리규정과 업무수행조건을 준수하여 통역한 날 수가 100일이 넘어야 하고 회원 등록된 지 5년이 지난 5명의 기회원의 추천을 받고 AIIC의 직업윤리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최정화 2005, 140).

제를 취합하여 용어정리 및 배경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러 통역 실습에서는 교수자가 준비한 연설의 원고를 읽어주거나 연설, 인터뷰, 회의 등을 녹음한 오디오 자료를 들려주거나 녹화한 비디오 자료 화면을 보여주면 학습자들이 통역을 해보는 교수자 주도의 통역 실습을 하거나 학습자 두 명이 짝이 되어 자신의 짝이 주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면 자동적으로 도착어로 통역을 하는 학습자 주도의 토론식 통역 실습도 가능하다.

통역 실습이 어떤 형식이든 한 학습자가 통역을 하면 통역내용에 대한 동료 학습자들의 비평이 이어지고 교수자가 조언을 해주는 피드백이 반드시 뒤 따른다.

이처럼 통역 수업이 통역의 실제와 다른 점은 통역실습 후 교수자 혹은 동료 학습자의 비평이 통역행위 뒤에 반드시 이어져 학습자 개개인의 통역실력을 연마하도록 학습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점이다. 즉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교수자 및 동료 학습자의 지적을 통해 학습자가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통역 수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통역수업의 단계에 따른 개요와 학습자와 교수자의 역할을 명시한 수업활동을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전통적인 면대면 수업에서 통역수업활동

|           | 학습자 역할                                                | 교수자 역할                                                         |
|-----------|-------------------------------------------------------|----------------------------------------------------------------|
| (1) 주제 준비 | 실제 통역 수업에 앞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읽고 배경과 요지를 정리하여 개별과제로 제출. | 제출된 학습자들의 주제배경지식 과제를 일일이 읽어보고 취합하고 부가적 설명을 합하여 정리한 후 수업시간에 제시. |
| (2) 용어 준비 | 주제준비를 통하여 도출된 용어를 정리하여 개별과제로 제출.                      | 학습자들의 용어 목록을 일일이 비교하여 보고 중복되는 단어를 제외하고 최종본을 만든 후 수업시간에 제시.     |
| (3) 통역 실습 | 교수자 주도 실습: 교수자가 직접 출발어 음성자료를 재현하거나 멀티미디어 자료로 보여줌.     | 학습자 주도 실습: 학습자끼리 짝을 지어 짝이 출발어로 의견을 제시하면 해당 짝이 도착어로 통역함.        |
| (4) 피드백   | 타 학습자의 통역 내용과 형식에 대해 비평.                              | 동료학습자들의 비평에 빠진 부분을 보충하여 비평                                     |

하지만 통역 수업의 기존 방식은 학습효과 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관찰된다.

첫째, 주제 준비 단계에서 주제에 대한 배경과 요지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은 개별과제로 제공되었다. 이때 학습자는 블라인드 상태에서 자신의 과제만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학습자들이 조사한 배경지식이나 용어는 수업시간 까지 알 수가 없고 따라서 통역준비가 개인별로 많은 차이를 낳게 된다. 통역 수업은 학습자 개개인이 특정주제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동등한 통역 실 습 기회를 부여 받아 본인의 통역 기술을 연마하여 보다 나은 통역 실력을 갖 추는 것이 학습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주제준비에서 자료 공유가 되지 않아 동등한 배경지식에 대한 접근에 제한을 받아 통역연습을 하기도 전에 통역 준비 단계에서 불평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제 배경 지식에 대한 자료의 공 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용어정리의 경우 학습자 측에서 보면 주제준비 과정에서 언급한 것 처럼 학습자간 자료의 공유가 되지 않아 학생 개개인의 통역 준비에 많은 차 이가 있다. 교수자 측에서 보면 학습자들이 개인과제로 제출한 주제 배경 지 식 정리 과제나 용어 정리 과제를 들여다보고 평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 되고 학습자들이 사용한 용어 틀이 달라서 주제관련 용어를 학생들의 과제를 토대로 재정리하여 최종본의 자료를 만드는데 시간 소요와 노력이 든다.

셋째, 수업 시간 내에 학습자의 통역이 끝나는 즉시 이를 듣고 동료학습자 들이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교수자가 이에 덧붙여 평가하는 오프 라인 피드백 형태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관찰된다. 일단 비평하는 동료학습 자나 교수자 모두 통역한 내용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정확히 지적할 수 없고 수업시간 역시 한정되어 모든 오류에 대한 지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한계 이다. 또한 그 평가를 들은 학습자 역시 피드백이 음성으로만 이루어지고 보 존이 안 되기 때문에 이후 자기 성찰을 할 기회가 없다. 따라서 자신이 한 통 역 내용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고 다음에 비슷한 내용의 통역을 하게 될 경 우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학습자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게 통역내용을 문자화할 필요성이 있다. 통역 내용의 문자화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면 동료학습자와 교수자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세세



하게 오류에 대한 지적이 가능하므로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루어진 피드백의 한계를 보완하게 된다.

## 2. 통역수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 방안

앞서 지적한 면대면 수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온라인 활동을 적용한 블렌디드 러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통역 강좌에서 학습 효과와 연관된 가장 중요한 활동은 면대면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통역실습 전에 일어나는 주제 배경 지식 및 용어집 구축과 같은 통역 전 활동과 통역 후 스스로 통역내용에 대한 자기성찰 및 학습자간의 의견교환활동이 일어나는 통역 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수업 전 활동과 수업 후 활동을 협력학습이 강화된 온라인 활동으로 제시하는 블렌디드 러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학습관리시스템(LMS) 중 오픈소스인 무들(Moodle)의 위키(Wiki)와 용어집(Glossary)과 같은 학습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반드시 무들이 아니더라도 위키와 용어집과 같은 기능이 제공되는 여타 학습관리시스템이 지원된다면 동일하게 대안을 적용할 수 있다.<sup>4)</sup> 온라인상의

4) 사이버 교육시스템에서 온라인 수강중인 학습자의 개인정보 및 출결상황, 성적관리, 학사관리 및 전체적인 학습관리를 해 주는 시스템을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하며 무들(Moodle)은 LMS 중 하나이다. Moodle은 Modular Object-Oriented Dynamic Learning Environment의 약자로 호주의 Martin Dougiamas가 개발한 오픈소스 LMS이다. 2002년 1.0버전으로 공식적인 탄생 이후 몇 개의 완전한 버전과 다수의 최적화된 출시판을 통해 진화해왔고 2010년 가장 향상된 버전인 2.0이 나왔다. 무들은 완성도가 높은 오픈소스 LMS이므로 상용 LMS에 비해 코드가 모두 공개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두영, 백영태, 이세훈(2008)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LMS인 ATutor, LRN, Moodle를 비교 평가한 결과에서 무들은 사용의 편리성이 높고 한글화 용이성 등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무엇보다 기업보다 초·중등 및 대학같은 교육기관에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는 비교 평가를 받았다. 무들의 기본 교육관은 사회구성주의 교육이론으로 “학습자는 사회 속에서 공유된 의미를 함께 나누며 서로를 점차 알게 되고 상호협력하여 하나의 작은 문화를 끊임없이 구성해 나간다”(Dougiamas 2003)는 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학습자들 간의 상호협력학습 활동에 주안점으로 둔 활동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LMS 기능이 특징적이다. 무들의 학습도구 설정 및 사용에 대한 안내는 무들연구회(2007)을 참조하기 바란다.

협력학습의 대표적인 도구인 위키는 통역 전 과제인 주제배경조사에 활용될 수 있고 통역 후 자기 성찰적인 활동인 통역한 내용을 전사하고 수정해보는 장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용어집은 통역 수업 전 준비단계에서 과제로 요구되었던 용어정리 과제를 대체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sup>5)</sup>

통역수업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 설계는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2> 통역 수업 블렌디드 러닝 설계 개요

| 수업활동    |                               | 기존 수업          | 블렌디드 러닝       |
|---------|-------------------------------|----------------|---------------|
| 수업 전 활동 | 주제배경지식조사                      | 서면 개인과제        | 위키 협력과제       |
|         | 용어조사                          | 서면 개인과제        | 용어집협력 또는 개인과제 |
| 수업      | 학습자의 통역 실습 및 교수자, 동료 학습자의 피드백 | 면대면 수업 (녹취 없음) | 면대면 수업 녹취     |
| 수업 후 활동 | 자가, 교수자, 동료 피드백               | 없음             | 위키 개인과제       |

통역 수업의 목표는 모국어와 외국어 숙달, 전문 지식의 함양, 통역 기술의 연마로 볼 수 있는데 이중 언어 숙달은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된다(양청수 2007, 38-39). 따라서 블렌디드 러닝으로 통역수업을 했을 경우 언어숙달 측면에서 요구되는 언어기능이 어떠한 기능인지 상세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배경지식 조사나 용어 정리 과제와 같은 통역 전 활동은 각각 무들의 위키와 용어집을 사용한 온라인 활동으로 가능한데, 이때 요구되는 언어 기능은 읽기와 쓰기 기능임을 알 수 있다. 주제 배경 지식 조사와 용어 정리는 모국어 혹은 외국어로 된 자료를 읽고 정리해야 하므로 양 언어의 읽기와 쓰기 기능 숙달이 요구된다.

둘째, 실제 수업에서 통역 실습을 할 때는 교수자가 통역원문을 읽어주거나 자료 화면을 보여주는 교수자가 원문을 제공하는 경우와 학생들 간에 짝 활동으로 토론형식의 실습을 할 경우 학습자들이 원문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요구되는 언어 기능은 듣기와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 통역 실습

5) 무들에서 구축할 용어집의 제목을 적으면 주제별 용어집이 구축될 수 있다. 또한 용어 정리의 경우도 모듈별로 구축하도록 하려면 모듈 설정을 하면 가능하다. 구축된 용어집은 철자순으로 보기, 범주별로 보기, 날짜순으로 보기, 작성자 사람 순으로 보기가 가능하므로 이후 교수자 및 학습자가 구축된 용어집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후 수업시간에 동료학습자와 교수자의 구어 피드백이 주어진다. 즉 통역한 사람이 잘한 점과 미흡한 점을 구두로 지적하게 되는데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완전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블렌디드 러닝 설계에서는 이러한 구어 피드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통역 내용의 재현이 가능하도록 수업 녹취가 이루어진다.

셋째, 위키에 녹취한 음성 파일을 교수자가 온라인에 올려주면 학습자들은 음성 파일을 듣고 자신의 통역한 부분을 위키에 전사하여 문자화한다. 이때 듣기 기능과 쓰기 기능의 숙달이 요구된다. 자신의 통역 내용을 원문과 대조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자가 피드백을 하고 의문 나는 점은 동료학습자나 교수자에게 의견을 구하면 답을 달아주는 타인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온라인 통역 후 활동은 학습자 스스로의 성찰을 요구하는 성찰적 사고를 활성화하는 활동이 된다. 언어 기능면에서 듣기와 쓰기 기능 숙달이 요구되지만 결국 정확한 쓰기 기능은 말하기 기능과 연결되어 있어 통역에 있어 보다 논리적인 말하기 숙달을 돕는 활동이 된다.

따라서 통역 토론 수업 블렌디드 설계에서 기대되는 언어 기능과 학습 효과는 다음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통역 수업에서 블렌디드 러닝 활동과 요구되는 언어기능

|         | 학습활동                            | 블렌디드 러닝        | 언어기능    |
|---------|---------------------------------|----------------|---------|
| 통역 전 활동 | 주제배경지식조사                        | 위키 협력과제        | 읽기, 쓰기  |
|         | 용어조사                            | 용어집 협력 또는 개인과제 | 읽기, 쓰기  |
| 통역실습    | 학습자의 토론실습 및 교수자, 동료 학습자의 구어 피드백 | 면대면 수업 녹취      | 듣기, 말하기 |
| 통역 후 활동 | 통역내용 문자화. 자가, 교수자, 동료 피드백       | 위키 개인 & 협력과제   | 듣기, 쓰기  |

### III. 협력학습과 선행 위키학습모델

앞장에서 제시된 통역수업을 블렌디드 러닝으로 운영하는 대체방안에서 온라인상에서 무들의 위키와 용어집을 이용하여 주제배경지식 조사나 용어

조사의 경우 개인과제에서 협력과제로 변경하고 통역 후 피드백 활동도 온라인에서 협력학습이 이루어지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와 같은 활동을 위해 무들의 위키(wiki)와 용어집(glossary)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위키는 흔히 협력학습도구라고 일컫는데 여기서 협력학습과 자주 혼용되어 쓰이는 협동학습과의 비교를 통해 합의를 상술했고 통역 수업에의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개발된 다양한 위키학습모델을 살펴보고 통역 수업에 맞는 위키학습모델을 구안하기 위한 기초로 삼도록 한다.

## 1. 협력학습 vs. 협동학습

협력학습(collaborative learning)은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과 구분되어 쓰이기도 하고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는 개념이다. 정희모(2006)에 따르면 협력학습과 협동학습은 교육철학 면에서 지식을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옮기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듀이(Dewey)의 철학적 관점을 따른다는 점이 같다. 반면 교육 원리나 방법, 용어 사용면에서 차이가 있다. 협동학습은 경쟁학습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하여 협동적인 환경에서 학업 성적의 향상과 더불어 대화, 토론, 협상, 양보, 설득, 예절 등의 사회관계의 기술을 함양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방법을 구조화하고 정교화한다. 반면 협력학습은 권위적인 교육환경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했다. 협동학습이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 있거나 최소한 가장 나은 해결책이 있다고 전제하는 반면 협력학습은 전통적인 교실의 권위적 질서에 도전하고자 생겨난 것으로 어떤 문제든 정답은 없으며, 정답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보아 출발점이 다르다. 또한 협동학습이 의견 차이를 줄여서 합의에 이르는 것을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는 반면 협력학습은 의견 차이를 격려하고 의견 불일치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협동학습이 모임 구조나 모임 활동 방법, 사회적 기술을 중시하고 다양한 모델이 있는 반면 협력학습은 모임 구성원을 더 중시한다. 교수자의 역할 면에서는 협동학습에서는 교수자가 모임 활동에 간

쉽하고 참여할 수 있지만 협력학습에서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습의 결과와 과제의 해결을 중시하는 협동학습과 달리 협력학습은 학습의 결과나 평가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와 같은 협력학습과 협동학습의 차이점은 다음 <표 4>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4> 협력학습과 협동학습의 차이

| 협 력 학 습                                 | 협 동 학 습                                        |
|-----------------------------------------|------------------------------------------------|
| 권위적 교육환경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했다.                 | 전통적 교실의 경쟁학습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했다.                    |
| 어떤 문제든 정답은 없으며, 정답을 요구할 수도 없다.          | 어떤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거나 최소한 가장 나은 해결책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
| 의견 차이를 격려하고 의견 불일치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 의견 차이를 줄여서 합의에 이르는 것을 중요한 과정으로 여긴다.            |
| 모임 구조나 모임 활동 방법, 사회적 기술보다 모임 구성원을 중시한다. | 모임 구조나 모임 활동방법, 사회적 기술을 중시한다.                  |
|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모임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 교수자가 모임 활동에 간섭하고 참여할 수 있다.                     |
| 협력학습을 통해 높은 사고와 추론 능력, 절차적 사고 능력을 기른다.  |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협동학습이라고 가정한다.         |

통역수업에서는 학습자 개개인의 사고와 추론 능력, 절차적 사고 및 통역 행위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교육목표가 되므로 결과보다 과정이 중시되는 협력학습의 의미가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블렌디드 러닝을 설계할 때 바탕이 되는 이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통역수업에서는 먼저 통역 주제에 대한 선행 조사를 수행할 때 개인과 제로 하는 경우보다 온라인 공간에서 협력학습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균등한 통역 준비의 기회를 학습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된다. 이 때 주제 배경 지식 조사에 확실한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고 동료학습자들과 자율적으로 자료를 수집, 편집, 재조직하게 되므로 협력학습의 개념에 알맞은 활동이 된다. 따라서 기존의 배경 지식 조사과제와 용어정리 과제가 개별학습에서 협력학습으로 전환된다면 상당한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통역 후면대면 수업에서 피드백의 시공간의 한계를 온라인상의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써 보완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녹음된 자신의 통역 내용을 온라인 공간에 전  
사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은 동료학습자나 교수자  
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드백 단계에 있어서도  
통역 표현은 한가지의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도착어  
표현이 가능하므로 동료들과의 상호작용 관계를 중시하고 학습 결과보다 과  
정을 중시하는 협력학습의 개념이 역시 통역 블렌디드 러닝의 성격을 규정  
하는데 보다 적합하다. 즉 통역수업의 개별학습을 협력학습으로 전환하고  
학습공간을 온라인 공간으로 확대하여 블렌디드 러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통  
역수업 개선안의 핵심이 된다.

## 2. 위키의 교육적 활용과 위키학습모델

그렇다면 온라인의 협력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학습지원 도구를 사용  
해야 할 것인가?

웹기반 협력학습의 대표적인 도구는 위키(wiki)라고 할 수 있으며 통역 수  
업의 개선을 위해 학습관리시스템의 위키를 사용하고자 한다.

위키란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간 협력하여 글쓰기를 가능하도록 하는 상호  
작용적 도구로 웹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퍼텍스트 저작 시스템의 일종이다.  
위키는 미국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커닝햄(Ward Cunningham)이 특정 프  
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1994년 처음으로 개발하여 동료 간의 협업 도구로 사용하였다.

위키의 기능 및 특징은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이재학 2008).

위키를 교수학습에 적용했을 때는 지식 구성 과제에서 협력학습으로 나타  
나게 된다. Cress & Kimmerle(2008)에 의하면 위키 기반 온라인 교수 학습 환  
경에서 학습자와 위키를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인지적 시스템  
(cognitive system)으로서의 개별적 학습자와 사회적 시스템(social system)으  
로서의 위키가 상호작용하면서 더불어 성장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위키  
라는 사회적 시스템 공간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자신의 지식을 위키에 제

〈표 5〉 위키의 기능 및 특징

| 특 성              | 내 용                                                                                                                                                  |
|------------------|------------------------------------------------------------------------------------------------------------------------------------------------------|
| 참여와 공유           | Anybody, Anything, Anywhere, Anytime의 4가지 속성의 사용자 중심의 웹사이트로 참여와 공유라는 특성에 의존한다.                                                                       |
| 문자 중심의 단순한 웹 페이지 | 관리자와 사용자간의 구분이 명확한 대부분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비해 위키 웹사이트는 누구나 자유롭게 내용을 편집할 수 있다.                                                                                 |
| 개방형 편집           | 위키는 다른 웹사이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개방형 편집(다른 사람의 글에 대한 침삭)이 가능하다.                                                                                              |
| 링크(link)         | 링크 기능으로 텍스트 혹은 다른 문서로 연결할 수 있으며 이는 문서 안에서 지식 그물을 만든다. 그리고 간단하게 외부 링크 구현되어 쉽게 이루어진다.                                                                  |
| 히스토리(history)    | 하나의 페이지에 대한 모든 버전이나 바뀐 내용, 변경된 사항을 요약 해서 보여주며, 사용자는 히스토리 페이지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문서의 진화 과정을 관찰할 수 있고, 글에 대한 편집과정에서 생산되는 글의 순서와 사용자의 참여(로그)를 확인할 수 있다. |
| 문서의 진화           | 협동적 글쓰기 활동 유형과 유사한 쓰기 활동을 통하여 완성도 낮은 문서에서 점차 완성도 높은 문서로 진화한다.                                                                                        |

공하는 과정에서 지식의 외재화를 경험하고 위키에 제공된 다른 학습자들의 지식을 공유하면서 지식의 내재화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위키도 독립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학습자들의 지식을 새롭게 추가하고 내용을 수정하고 새롭게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진화하게 된다.

다음 <표 6>은 위키에서 협력학습이 이루어질 때 개별학습자와 위키 지식 생성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위키의 교육적 효과는 선행연구에 바탕으로 두고 보다 세부적

〈표 6〉 위키에서 온라인 협력학습 과정 (원지영 · 한승록 2009, 170)

|                                                | 학습과정                               | 학습경험                                                                                           |
|------------------------------------------------|------------------------------------|------------------------------------------------------------------------------------------------|
| 개인학습<br>(individual learning)                  | 내재적 동화<br>(internal assimilation)  | quantitative individual learning:<br>새로운 지식(new knowledge) 수용                                  |
|                                                | 내재적 조절<br>(internal accommodation) | qualitative individual learning:<br>사전지식(prior knowledge)의 수정 또는 새로운 지식(emergent knowledge) 생성 |
| 협동적 지식생성<br>(collaborative knowledge building) | 외재적 동화<br>(external assimilation)  | quantitative knowledge building:<br>위키에 새로운 지식의 양적 추가                                          |
|                                                | 외재적 조절<br>(external accomodation)  | qualitative knowledge building:<br>위키에 새로운 지식의 질적 추가                                           |



인 교육효과 및 적용시 유의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위키 협력학습은 학습자들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참여도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경험하게 한다(김진주 2005).

둘째, 위키환경에서 학습자들이 동료학습자에게 제공한 피드백은 공동과제 수행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동료 피드백이 위키 내용을 변경한 횟수와 최종 과제 완성도에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원지영 · 한승록 2009). 따라서 학습자의 근면성, 협동성, 책임감과 같은 사회성 발달 수준이 학습만족도에 영향이 있으며 동료피드백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모듈구성시 학습자의 사회성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김정겸 2009).

셋째, 위키기반 블렌디드 러닝 환경에서 학습동기에 따라 학습과제 수행 및 수업만족도가 달라지므로 학습자에게 동기부여가 중요하다(최재용 2011).

넷째, 위키를 수업에 활용할 때 면대면 접촉이 증가할수록 학습자의 위키를 이용한 학습태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활동을 도입하더라도 면대면 접촉 기회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위키를 활용한 협력학습의 진행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주는 것이 학습태도와 학습효과에 유의미하므로 교수자가 학습자들에게 위키 협력학습의 모든 절차와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일임하기보다 교수자가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한승록 2009).

다섯째, 위키 기반 협력학습을 사용할 때 학습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참여도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학습유형은 지식학습형, 문제해결형, 토론학습형 등과 같이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예컨대 지식학습형에서는 글쓰기 형태의 위키 게시판이 알맞고 토론학습형의 경우 의견의 교환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대화게시판이 알맞다(최용훈 외 2010).

이상 위키를 협력학습도구로 이용했을 때 교육적 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표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위키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또 다른 선행연구 흐름은 위키 기반 교수 · 학습 모형 개발연구다. 위키 학습 모형은 모든 교과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모형과 각 교과에 맞게 특성화한 교과특성화모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교과특성



〈표 7〉 위키 활용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

| 연구자                           | 연구주제                                                     | 위키 활용의 교육적 효과                                            |
|-------------------------------|----------------------------------------------------------|----------------------------------------------------------|
| 김진주<br>(2005)                 | Wiki 환경에서의 학습 상호 작용성                                     | 학습자들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참여도를 촉진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경험하게 함.            |
| 김정겸<br>(2009)                 | 위키 기반 혼합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특성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 위키기반 혼합학습 환경에서 학습동기와 학습과제 수행 및 수업만족도는 정적 상관이 있었음.        |
| 원지영,<br>한승록<br>(2009)         | 위키를 활용한 온라인 협동학습 전략이 대학생들의 학습과제 수행 결과 및 태도에 미치는 효과       | 동료들이 제공한 피드백에 따라 위키내용을 변경한 횟수와 최종 과제 평가간에 정적 상관 관계가 있었음. |
| 한승록<br>(2009)                 | 위키 기반 협동학습과제 수행에서 혼합학습 유형과 협동학습 구조화 전략이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 혼합학습에서 면대면 접촉 기회와 협력 학습전략 안내가 학습태도와 상관이 있었음.             |
| 최용훈,<br>오상철,<br>김성완<br>(2010) | 위키 기반 온라인 협동학습에서 학습과제 유형에 따른 학습자 참여도와 의사소통 과정 차이 연구      | 학습유형과제에 따른 학습자 참여도가 상관이 있음.                              |
| 최재용<br>(2011)                 | 위키를 활용한 협동학습에서 사회성 발달에 따른 모듈구성이 학습 성취도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 학습자의 근면성, 협동성, 책임감과 같은 사회성 발달 수준이 위키 학습만족도와 상관이 있음.      |

〈표 8〉 위키 학습 모형 선행연구

| 연구자                             | 연구주제                                                         | 위키 기반 학습모형의 특징                                                                                                                                             |
|---------------------------------|--------------------------------------------------------------|------------------------------------------------------------------------------------------------------------------------------------------------------------|
| 이재학<br>(2008)                   | 위키 기반의 협동적 글쓰기 학습모형 개발 연구                                    | 단계별 글쓰기 지원 전략 제시<br>블렌디드 러닝 설계<br>위키를 활용한 협동적 글쓰기<br>순환적 작문활동<br>도입-전개-정착의 3단계                                                                             |
| 금혜운<br>(2009)                   |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위키 기반 토론학습모델 개발                               | 학습자 중심, 모듈별 토론 모형.<br>면대면 토론학습모형과 웹기반 토론 학습 모형의 선행 모델을 수정하여 위키 기반 토론학습모형 개발.<br>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비판적 사고기능 검사 실시하여 모형의 타당성 검증.<br>준비단계-지식생성단계-지식선정단계-평가단계의 4단계 |
| 김길모, 김성식,<br>이인숙, 강성국<br>(2010) | 위키의 교육적 활용 활성화 방안                                            | 범용모델, 협력학습, 블렌디드 러닝, 학습자 중심, 모듈형 모형.<br>도입-전개-정리의 3단계                                                                                                      |
| 송선옥<br>(2011)                   | 위키기반 토론 수업 모형의 설계 기반 연구 -Brookfield와 Preskill의 토론수업 모형을 중심으로 | 위키기반 교수전략을 사전안내전략, 주인의식전략, 공유활동전략, 피드백전략, 상호작용촉진전략으로 상세화.<br>브룩필드와 프레스킬의 토론수업 모형을 위키 활동에 맞게 수정 개발.<br>준비-시작-진행-정리의 4단계                                     |

화모형에서는 주로 글쓰기와 토론 학습 모형에 한정되어 개발이 이루어졌다.

<표 8>은 위키 학습 모형을 개발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표 8>의 선행 모형들은 교수 · 학습 환경과 교수 · 학습 과정의 관계를 도식화하고 학습자의 개인 학습활동과 위키를 이용한 협력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각각 보여준다.

위키 학습 모형의 공통점은 교과교육에서 위키를 활용할 때 교수 · 학습 환경은 참여와 공유,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학습주제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수 · 학습 과정은 크게 학습 도입단계, 학습 전개단계, 학습 정리단계의 3단계 혹은 준비, 시작, 진행, 정리의 4단계로 진행되며 기본적으로 협력학습 모델에 기초를 두고 있다. <표 9>는 선행연구의 위키 기반 학습모형을 비교한 것이다.

<표 9> 위키기반 학습모형 비교

| 이재학(2008)<br>글쓰기 모형 |                                    | 금혜운(2009)<br>토론학습모형 |                                                                           | 김길모, 김성식, 이인숙,<br>강성국 (2010) 범용모델 |                                                                                                                    | 송선옥(2011)<br>토론학습모형                                      |
|---------------------|------------------------------------|---------------------|---------------------------------------------------------------------------|-----------------------------------|--------------------------------------------------------------------------------------------------------------------|----------------------------------------------------------|
| 도입                  | 학습목표확인<br>배경지식의<br>성화              | 준비<br>단계            | 토론규칙안내<br>모둠구성<br>토론 주제 안내<br>및 선정<br>토론 전 찬/반 입<br>장 확인                  | 학습<br>도입                          | 학습목표 및 과제<br>제시<br>자료수집 및 저장                                                                                       | 준비<br>사전훈련<br>토론 문제 확인<br>및 질문 작성<br>토론학습을 위한<br>오프라인 수업 |
|                     | 작문활동 (생각꺼<br>내기-생각뭉기-초<br>고쓰기-다듬기) | 지식<br>생성<br>단계      | 토론자료공유<br>위키개념 적용<br>하여 주장 진술<br>완성된 페이지 살<br>펴보기<br>토론 후 찬/반 입<br>장 확인하기 | 학습<br>전개                          | 마인드맵 그리기<br>개요 만들기<br>학습문제해결 (분<br>석-응용-생산의 학<br>습활동전개, 학습내<br>용의 조직화, 토론<br>및 공유, 검토 과정,<br>학습자-교수자 피드<br>백 상호작용) | 시작<br>자료수집<br>토론 전 입장 확인<br>토론 촉진 활동                     |
| 정착                  | 지원전략(아이디<br>어 생성활동<br>내용구성하기)      | 지식<br>선정<br>단계      | 모둠별 지식 선정<br>생성된 지식을 다<br>른 모둠과 공유                                        | 학습<br>정리                          | 평가하기<br>출판하기                                                                                                       | 진행<br>위키 개념 적용하<br>여 주장 진술하기<br>토론 후 입장 확인               |
|                     | 작문결과 정리발표<br>작문과정 결과 평가<br>작품화하기   | 평가                  | 지식생성과정 및<br>결과 평가                                                         |                                   |                                                                                                                    | 모듬별 지식 선정<br>표현 활동<br>성찰일지                               |

교과특성화모형은 교과목의 특성을 모형 내에서 반영하고 있으며 범용 모  
델의 경우 보다 일반적인 위키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어 있다. 글쓰

기 모형과 토론학습모형의 경우 통역수업과 세부적인 학습단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통역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모형은 아니며 범용모델의 경우 위키를 모든 교과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시적인 학습단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수정 보완한다면 통역수업을 위한 위키 학습 모형 개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범용모델에서는 학습 도입단계에서는 학습목표 및 과제 제시, 자료의 수집 및 저장이 이루어진다. 학습 전개단계에서는 학습자는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의 수집으로부터 시작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 응용, 재생산해내는 반복적인 개인 활동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다른 학습자와 공유, 검토, 토론, 평가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게 지식을 생성하거나 구성할 수 있다. 마지막 학습 정리단계에서는 개별 및 협력학습으로 평가와 출판이 이루어진다.

이 모형을 통역 수업에 적용한다면 통역 전 과정에서 지식구성형 학습인 배경지식 조사 및 용어 정리 과제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에 적용가능하며 또한 통역 후 단계에서 자신의 통역한 내용을 전사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동료학습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토론학습형 피드백 활동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 위키학습모델이 통역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통역 수업의 특성에 맞게 다음 장에서 모델링하고자 한다.

또한 위키뿐만 아니라 통역 수업에서 용어정리 과제는 위키 과제에 연계되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통역 수업의 매우 특징적인 학습활동이므로 배경지식 조사 과제의 위키 학습 모형에 용어집 활용을 더하여 수정된 학습형태로 모델링하고자 한다.

#### IV. 위키 기반 통역수업모형 개발

본장에서는 통역수업을 위키학습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학습효과를

성찰적 사고 이론을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1. 통역수업을 위한 위키학습모델 개발

본 논문에서는 통역 수업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을 설계할 때, 통역 전 활동, 통역활동, 통역 후 활동으로 구분하고, 기존 수업방식의 문제점을 앞장에 서 지적한 바 있다.

외국어 통역 수업의 블렌디드 러닝 대안의 주안점은 면대면 수업의 특성상 일회성으로 자료의 공유 및 피드백이 부족한 지식학습유형을 온라인의 위키나 용어집의 기능을 적절히 이용하여 학습자간 지식학습이 강화되게 하고 고무하고 교수자 및 동료학습자의 피드백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온라인상의 위키에서도 이루어지게 토론학습유형을 강화하여 결국 교실 밖에서도 학습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었다.

통역 수업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학습효과로 언어 기능 향상 외에 자료 조사 능력에 기반한 지식 구축 능력 및 비판적 사고력에 바탕을 둔 일반 사고 능력의 향상을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역의 경우 세밀한 자료 지식 조사 능력이 필수적이며 출발어 입력에 대해 끊임없이 연사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언어의 형식보다 의미를 추론해야하는 비판적 사고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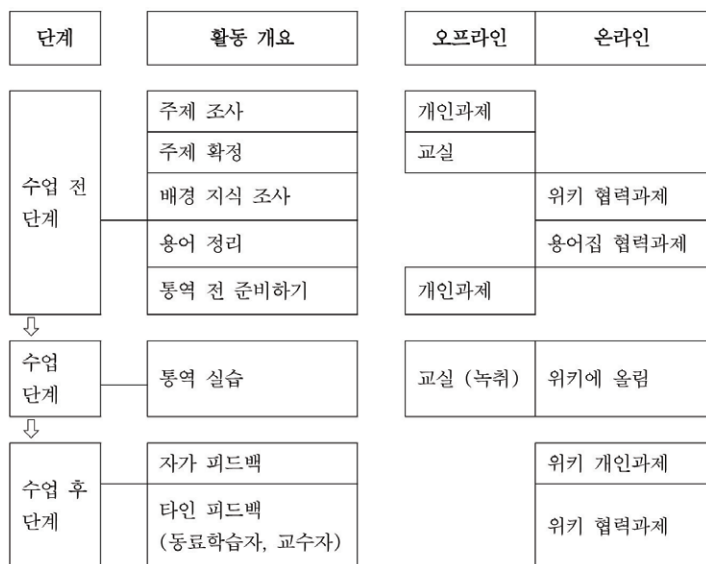
따라서 통역 수업을 위한 위키기반 학습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한다. 자료 조사 능력에 기반한 자료 구축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과 언어 숙달을 고려한 학습 모형은 선행연구 중 토론 수업 모형이 이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토론 수업 모형은 모국어 화자를 위한 학문 목적의 토론 수업 모형과 외국어 토론수업 모형으로 이분할 수 있는데 모국어 화자의 학문목적의 토론 수업 모형은 토론 기술의 습득을 목표로 만들어진 모형이 대부분으로 언어 기능 습득이 중요한 통역수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외국어 토론 수업 모형의 경우 언어 기능 습득이 주 학습 목표가 되지만 자료 조사와 비판적 사고력을 고

려한다. 일반적으로 토론 전 단계에서 논제 제시, 용어와 개념 정리, 기존의 인식 및 문제 유발 원인 정리, 입론 준비가 이루어지고 본 토론 단계에서는 입론과 반론의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고 토론 후 단계에서는 평가 및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외국어 토론 수업 모형을 통역 수업에 맞게 블렌디드 러닝 모형으로 개발에 적용하고자 한다.

통역 수업의 경우 교수자가 주제를 선정하고 원문을 준비해오는 교수자주도의 학습형태와 학습자들이 주제를 선정하고 한 학습자가 발의한 것을 다른 학습자가 목표로 통역해주는 학습자 주도의 수업형태가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 토론수업에 가깝게 된다. 황주원(2009)의 외국어 토론 수업모형을 예로 들면 외국어 토론 수업에서는 입론 연습 단계와 반론 연습 단계를 본 토론에 앞서 설정하고 있지만 통역 수업에서는 해당 외국어에 대한 고급 수준의 언어 구사력이 있는 학습자들이므로 외국어 토론 수업에서처럼 입론과 반론에 유용한 외국어 표현과 그에 상응하는 모국어 표현을 토론 수업 시간



〈그림 3〉 통역 수업을 위한 위키학습모델

에 제시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본고에서는 외국어 토론 수업 모형을 적용 하되 통역 수업에 알맞게 수정한 위키학습모델 <그림 3>을 도출할 수 있다.

통역 수업 모형은 블렌디드 러닝으로 오프라인 수업활동과 온라인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구성되는 점이 외국어 토론 모형과 다른 점이다.

또한 통역 전 단계가 되는 수업 전 단계에서 교수자 혹은 학습자가 주제를 조사하게 한다는 점이 외국어 토론 수업 모형과 다른 점이다. 학습자가 주제를 준비해올 경우 교실 수업시간에 구두로 발표한다. 이때는 모국어 및 외국어 양 언어 사용이 가능하다. 학습자들이 준비해온 논제 가운데 다수결로 수업 주제를 몇 가지 확정한다. 주제 설정에 학습자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은 실제 통역에서 학습자의 입력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교수자가 특정 통역 주제를 설정해주는 경우 이 과정은 교수자에 국한되어 이루어지며 학습자들은 배경지식조사 과제부터 시작한다.

확정된 주제에 대해 배경지식을 조사하고 용어를 정리하는 과제가 팀별로 주어진다. 이때 온라인 상의 위키와 용어집을 사용한다. 각 학습자들은 팀별 자료 구축 과제를 진행하는 가운데 본 수업에서 어떤 형태의 원문이 제공되고 자신은 어떤 용어에 유의하고 어떤 표현으로 통역해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통역 전 준비를 한다.

수업 단계에서 교수자는 온라인 상의 자료를 보고 내용을 취합하여 정리한 후 수업시간에 제시해준다. 학습자들은 개요 및 주요 용어를 인지한 후 본격적인 통역실습에 들어간다. 본 수업 단계에서는 교수자가 통역 출발어 원문을 낭독, 오디오나 비디오 자료로 제공하거나 학습자가 발의하는 경우 모두 가능하다. 각 학습자들은 짝활동으로 자신의 짝의 통역이 끝날 때마다 통역의 질을 평가하고 교수자 피드백도 덧붙여진다. 학습자 주도의 수업이었다면 출발어로 의견을 준 짝이 자신의 짝의 통역 결과물을 평가하게 할 수 있고 교수자도 이에 의견을 덧붙일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토론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이 구어 피드백은 생략하고 녹취만 이루어지고 온라인상에서 피드백이 모두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다.

수업 후 단계에서는 온라인 상의 위키를 이용하여 스스로 통역 내용을 전사하고 문자화한 후 오류를 수정하는 자가 피드백과 그 내용을 본 동료학습자들과 교수자의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이때 본인이 알지 못했던 유용한 표현을 배우게 된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통역 수업 위키학습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통역 수업 모형은 블렌디드 러닝 모형이다.

둘째, 온라인의 위키와 용어집 사용을 적용한 위키 기반 학습 모형이다.

셋째, 통역 전 단계는 지식학습형으로 통역 후 단계는 토론학습형으로 개발된 협력학습모형이다.

넷째, 통역 수업에서 교수자 주도형과 학습자 주도형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형이다.

## 2. 위키학습모델의 타당성

통역 수업에 본 논문에서 개발한 위키학습모델을 적용할 때 학습효과에 대한 타당성을 성찰적 사고 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듀이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사고는 오직 성찰적 사고(reflective thinking)이며 이는 “어떤 믿음이나 소위 지식의 형태에 대해 지지하는 근거와 가져올 결과에 비춰 적극적이고 지속적이며 세심하게 숙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듀이에게 있어 성찰적 사고는 지식과 경험을 연결하는 고차적 사고의 과정으로 학습자들이 지식을 받아들일 때 성찰적 사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지식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기를 주장한 바 있다(듀이 2011). 경험 학습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콜브(Kolb)는 성찰적 사고를 모든 학습활동의 핵심 과정으로 보고, 학습은 성찰적 사고를 통하여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고 개인의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강인애·정은실 2009).

Shon(1983; 1987)은 성찰의 개념을 성찰이 발생하는 기점을 기준으로 ‘행

위 중 성찰'과 '행위에 대한 성찰'로 나누고 있다. 행위 중 성찰(reflection-in-action)은 고도의 전문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성찰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행위에 대한 성찰(reflection-on-action)은 이미 수행한 자신의 업무 행동을 돌아보는 사고의 과정으로서 미래의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탐색해보는 성찰이다.

통역 수업에서 성찰적 사고는 매우 중요한데 통역실습 가운데 자신이 선택한 도착어의 표현이 출발어의 의미를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된다. 또한 통역이 끝난 후 어휘, 문법, 화용적으로 어떤 실수를 하고 언어적 오류를 범했는지 성찰함으로써 차후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는 인식적 기제를 마련한다. 즉 통역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학습요소가 되며 이 때 학습자의 내적 성찰을 강화하는 것이 학습효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통역 수업에서는 수업시간에서 이루어지는 통역 연습에서는 학습자의 행위 중 성찰이 일어나고 통역 직후 주어지는 동료학습자와 교수자의 구어 피드백은 행위에 대한 성찰이다. 하지만 구어의 특성상 모든 오류를 일일이 기억하고 지적하기 어렵고 시간의 제약이 있어 피드백이 완벽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처럼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에서 간과되는 행위에 대한 성찰은 온라인 활동으로 보완할 수 있다. 통역 수업 블렌디드 러닝 대체방안에 따르면 통역 후 단계에 요구되는 위키에 통역 내용을 전사하여 문자화를 하는 개인과제에서는 통역 행위에 대한 성찰을 강화할 수 있다. 문자화 과정 이후 오류를 수정하며 더 나은 목표어 표현을 탐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도 역시 행위에 대한 성찰을 강화한다. 자신의 목표어 언어 능력이 부족할 경우 동료학습자나 교수자에게 적당한 표현을 질문하고 대답을 읽는 가운데에서도 또 한 번 통역 행위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므로 통역 후 행위에 대한 성찰이 3차에 걸쳐 일어나게 되므로 매우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성찰적 사고 이론에 입각하여 통역 수업의 블렌디드 러닝의 각 활동이 해



당하는 성찰적 사고 단계를 <표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0> 통역 수업 블렌디드 러닝의 성찰적 사고 단계

| 학습활동          |                     | 블렌디드 러닝              | 성찰적 사고 단계                             |
|---------------|---------------------|----------------------|---------------------------------------|
| 통역<br>전<br>활동 | 주제 조사               | 개인과제                 | 행위 전 성찰<br>(reflection-before-action) |
|               | 주제 확정               | 교실                   |                                       |
|               | 주제배경지식조사            | 무들 위키 협력과제           |                                       |
|               | 용어조사                | 무들 용어집 협력<br>또는 개인과제 |                                       |
|               | 통역준비하기              | 개인과제                 |                                       |
| 통역<br>실습      | 통역실습                | 교실 면대면 수업 녹취         | 행위 중 성찰<br>(reflection-in-action)     |
| 통역<br>후<br>활동 | 통역내용 문자화            | 무들 위키 개인과제           | 행위에 대한 성찰<br>(reflection-on-action)   |
|               | 자가 오류 수정            | 무들 위키 개인과제           |                                       |
|               | 교수자, 동료 학습자의<br>피드백 | 무들 위키 토론과제           |                                       |

기존 성찰적 사고 이론에서는 행위 중 성찰과 행위에 대한 성찰로 이분화였지만 통역 토론 수업에서는 토론 통역에 앞서 예견할 수 있는 출발어의 내용을 도착어로 통역할 경우 어떤 표현을 써야하는지 학습자가 행위를 가상하여 성찰이 이루어지므로 행위 전 성찰 단계(reflection-before-action)를 추가하여 <표 10>과 같이 설명한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통역 전, 통역 중, 통역 후 요구되는 자기성찰을 각 단계에 맞게 구안된 통역 수업을 위한 위키학습모델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면대면 통역수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하는 목적에서 기존 수업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블렌디드 러닝을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통역 수업을 통역 전 활동, 통역활동, 통역 후 활동으로 구분하고, 배경지식 조사 및 용어 조사와 같은 통역 전 활동과 통역 후 동료학습자와 교수자의 피드백이 주어지는 통역 후 활동을 온라인 상에서 위키와 용어집과 같은 협력학습도구를 사용하여 학습의 시공간이 연장되게 하도록 운영하는 방

안이었다. 통역 전 활동 중 배경지식 조사는 지식학습유형으로 위키의 대표적인 기능을 활용한 예이며 용어정리는 용어집을 활용하도록 설계하였다. 통역내용에 대한 교수자 및 동료학습자의 피드백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온라인상의 위키에서도 이루어지게 한 통역 후 활동은 토론학습유형으로 모든 학습자의 토론 내용이 하나의 텍스트로 제시되는 위키를 사용하지 않고 게시판 형태로 각각의 학습자가 글을 게시하고 다른 학습자들이 답글을 달수 있는 게시판이나 포럼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고에서 제시한 위키학습모델은 오픈소스 학습관리시스템인 무들의 사용을 전제로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였으나 반드시 무들이 아니더라도 교내의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위키와 용어집이 사용가능하다면 오히려 무들을 사용하지 않고 교수자가 관리하기 편하고 학습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교내 학습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더 권장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강좌의 특성과 학습자들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추어 학습모델과 수업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적절한 학습관리시스템의 학습도구가 활용되어질 때 블렌디드 러닝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위키학습모델은 통역 수업을 블렌디드 러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교수자들이 적절한 수업 설계를 하고자 할 때 돕고자 하는 목적에서 구안되었으며 학습목표, 학습상황에 따라 변형, 수정하여 적용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Cress, U. & Kimmerle, J.(2008), "A systematic and cognitive view on collaborative knowledge building with wikis,"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 3, pp. 105-122.
- Dougiamas, M.(2003), <http://docs.moodle.org/en/Philosophy>.

Driscoll, M. P.(1994), *Psychology of learning for instruction*, Boston: Allyn & Bacon.

Harasim, L., Hiltz, S. R., Tates, L. & Turoff, M.(eds.)(1995), *Learning networks: A field guide to teaching and learning online*, Cambridge, MA: The MIT Press.

Schon, D. A(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New York: Basic Books.

Schon, D. A.(1987), *Educating reflective practitioner*, San Francisco: Jossey-Bass Books.

강인애, 정은실(2009), 「성찰저널이 지닌 교육적 의미에 대한 탐구: 대학에서의 수업사례」, *교육방법연구*, 21(2), pp. 93-117.

금혜운(2009),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위키 기반 토론 학습 모델 개발」,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길모 외.(2010), 「위키의 교육적 활용 활성화 방안」,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3(2), pp. 25-34.

김정겸(2009), 「위키 기반 혼합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특성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9(2), pp. 59-78.

김진주(2005), 「Wiki 환경에서의 학습 상호 작용성」,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9(1), pp. 236-241.

무들 연구회(2007), 『무들 활용 입문: 오픈 소스 학습관리시스템 무들 v 1.9 활용법』, 북스힐.

민두영, 백영태, 이세훈(2008),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LMS 비교 평가」, *한국 컴퓨터정보학회*, 2008 제 38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6(1), pp. 47-53.

송선옥(2011), 「위키기반 토론 수업 모형의 설계 기반 연구 -Brookfield와 Preskill의 토론수업 모형을 중심으로」, *경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성혜(2012a), 「MOODLE을 이용한 한서통번역 수업의 블렌디드 러닝 설

- 제」, 스페인어문학, 62, pp. 9-36.
- 양성혜(2012b), 「통역 수업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청수(2007), 『통역교육연구 이론과 실천』, 손지봉, 김영민, 안희정 옮김, 한국문화사, pp. 38-39.
- 원지영, 한승록(2009), 「위키를 활용한 온라인 협력학습 전략이 대학생들의 학습과제 수행 결과 및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9(2), pp. 167-184.
- 이재학(2008), 「위키 기반의 협동적 글쓰기 학습모형 개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희모(2006), 『글쓰기 교육과 협력학습』, 삼인.
- 존 듀이(2011), 『하우 위 싱크: 과학적 사고의 방법과 교육』, 정희옥 옮김, 학이시습.
- 최용훈, 오상철, 김성완(2010), 「위키 기반 온라인 협동학습에서 학습과제 유형에 따른 학습자 참여도와 의사소통 과정 차이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6(1), pp. 1-21.
- 최재용(2011), 「위키를 활용한 협동학습에서 사회성 발달에 따른 모듈구성이 학습 성취도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화(1998), 『통역번역입문』, 신론사.
- 최정화(2005), 『외국어와 통역 · 번역』,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한국교육공학회(2005), 『교육공학용어사전』, 교육과학사.
- 한승록(2009), 「위키 기반 협동과제 수행에서 혼합학습 유형과 협동학습 구조화 전략이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9(3), pp. 311-330.
- 황주원(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토론 수업 모형 개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IIC (국제회의통역사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ference Interpreters)

<http://aiic.net/>(2012.10.31)

218

219

## 양 성 혜

고려대학교  
sunghyey@hanmail.net

## 송 상 기

고려대학교  
sangkee@korea.ac.kr

논문투고일: 2012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4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2일

# Development of a Wiki-based Learning Model for Foreign Language Interpretation Courses

**Sunghye Yang & Sang-kee Song**

Korea University

Yang, Sunghye & Song, Sang-kee (2012), Development of a wiki-based learning model for foreign language interpretation courses.

**Abstract** The training of qualified interpreters has been a crucial educational issue for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era of globalization. In Korea, the education of interpretation has been offered in courses of foreign languages for each undergraduate and graduate courses specialized for the interpretation. The class is usually done off-line and consists of the following four steps: preparative phase of the subject, preparative phase of specific terms, phase of interpretation practice and phase of feedback. But some problems are observed from the point of view of learning effectiveness. First, students submit to the teacher personally the task of investigating an issue and specific terms so that students can't share the information each other and lose the opportunity to prepare for the class in advance with equality. Second, the oral feedback from peers and the teacher in class is so limited with respect to time and content that students may not have an opportunity to reflect their performance neither in class nor after class. If students themselves had an opportunity to reflect their performance after class, they would learn more. To provide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blended learning in the interpretation class and elaborated a wiki-based learning model.

**Key words** Learning, Glossary, Interpretation Course, Learning Model, MOODLE, Wiki